

전남 청년 실업률 전국 최고...물가 상승률도 1위

통계청 1분기 경제 동향...광주 고용률 1.3%P ↓·4분기 연속 하락세 전남 청년실업률 6.3%P 급증한 13.4%...광공업생산 3분기만에 반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고용난이 지속되면서 올해 1분기 전남 청년 실업률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폭우와 한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재가 겹치면서 농축산물을 포함한 물가 상승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내용은 1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호남지역경제동향' 결과에 담겼다. 올 1분기(1~3월) 지역 고용률은 광주 57.5%·전남 62.2%로, 1년 전보다 각각 1.3%포인트, 0.6%

포인트 감소했다. 광주 고용률은 4분기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전남도 2분기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전남이 지난 2019년 3분기 이후 5분기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기며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 청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 6.3%포인트나 급증한 13.4%로, 전국 평균 9.9%를 웃돌았다. 전남에 이어서는 경북(12.1%), 경남(11.1%), 인천(10.8%), 서울(10.7%), 대구(10.2%), 부산·경기

(각 9.8%), 울산(9.3%), 대전(8.9%), 강원(8.7%), 광주(8.5%), 전북(7.7%), 세종(7.0%), 충남(6.7%), 제주(6.4%), 충북(5.6%)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 청년 실업률은 8.5%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1분기 전남 청년 실업률이 급증한 것은 여유가에 따른 석유정제·화학제품 생산업의 업황부진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전남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만 1000명 감소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가 각각 1만9000명, 1만6000명 줄어들기도

했다. 올 1분기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를 기록한 가운데, 전남 상승률은 1.5%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전남 물가 상승률을 품목별로 나눠보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11.6% 올랐고, 개인서비스는 1.7% 상승했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0.4% 올랐는데, 17개 시도 가운데 공공서비스 물가가 오른 지역은 전남과 제주(0.1%) 2곳 뿐이다. 광주 물가 상승률은 1.0%로, 서울(0.8%), 경북(0.9%)에 이어 울산·강원과 함께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다. 전국 광공업생산은 1년 전보다 4.5% 늘어난 가운데 경기(11.4%), 충북(8.7%)에 이어 광주

(7.9%) 증가율이 세 번째로 높았다. 광주 생산 회복세는 전기장비(26.7%)와 담배(126.7%), 자동차·트레일러(5.6%) 업종이 이끌었다. 전남 광공업생산은 전년보다 2.8% 증가하며 3분기 연속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을 끝냈다. 전국 건설수주액은 공장·창고, 주택, 기타 건축 등의 수주가 늘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5.0% 증가했다. 울산(-63.3%)과 광주(-49.9%), 전북(-40.1%), 대전(-37.0%), 부산(-36.4%), 전남(-24.0%), 세종(-0.8%) 등은 주택, 도로·교량 등의 수주가 줄었으나, 제주(168.5%), 경북(135.6%) 등 10개 시·도는 수주액이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가운데) 임직원들은 5·18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최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앞서 광주은행은 5·18 공익통장 '넋이' 판매 수익금 2000만원을 5·18기념재단에 기탁했으며, 내년 4월까지 판매하는 수익금 일부도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제공>

코로나 충격 벗어나나...광주 수출 4개월 연속 증가세

광주·전남 전년비 86% 이상 증가 무역수지 11억1400만 달러 흑자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전년 대비 8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가전과 자동차, 타이어 등 지역 중추산업을 중심으로 4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어갔고, 전남은 선박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1년 4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의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86.2% 증가한 44억 7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57.1% 증가한

33억5700만 달러, 무역수지는 11억14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기준으로 보면 수출은 전년 대비 32.7% 증가했고, 수입도 13.4% 늘면서 무역수지는 49억68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특히, 광주지역 수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61.5% 증가한 14억6500만 달러로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수입은 47.5% 증가한 6억74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7억9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의 수출 상승세는 자동차를 필두로 지역 주력 산업이 이끌어가는 분위기다. 광주는 승용차 수출이 91.3% 증가하고, 자동차 부품이 무려 525%

증가하는 등 수출장비가 전년 대비 95.6% 늘었다. 가전제품 역시 냉장고가 10.4% 증가하고, 에어컨이 102.8% 늘어나는 등 98.8% 증가했다. 이밖에 타이어 108.8%, 기계류 40.6% 등 주력 산업의 수출 증가가 이어졌다. 전남지역 수출은 선박이 이끌었다. 전남은 전년 동월대비 101.2% 증가한 30억600만 달러, 수입은 59.7% 증가한 26억8300만 달러로, 3억23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선박이 전년 대비 2만3992% 급증하면서 수송장비 수출이 총 9805.4%나 증가했다. 주력 산업인 철강제품도 234.4%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기용 기자 pbxer@

“비어있는 전기차 충전기 카카오내비로 찾아요”



이종환(왼쪽 두번째) 한전 사업총괄부사장과 류공선(왼쪽 세번째)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전기차 충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서비스 개발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한전 제공>

한전·카카오모빌리티 협약 주차요금 할인 서비스 개발도

한국전력과 카카오모빌리티는 2800만 이용자를 보유한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를 이용해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사옥에서 '전기차 충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서비스 개발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길 안내 앱 '카카오내비'와 한전 플랫폼 '차지 링크'를 연계해 경로상 가까운 충전소를 찾아내고, 간편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전이 개발한 '차지 링크'는 모든 전기차 충전 사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이다.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자사의 충전기가 없는 지역에서도 제휴된 타사의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할 수 있다. 충전소를 추천할 때는 경로상 위치와 충전기 상태, 요금정보 등을 감안해 도출한다. 또 카카오모

빌리티가 운영 중인 카카오 T 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할인 간편결제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 할인 서비스는 앞으로 무인 주차장 전체로 확대된다. 이종환 한전 사업총괄부사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한전 인프라와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의 기술이 결합되면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사의 협력 모델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3134.52 (-18.80)
코스닥	962.50 (-4.22)
금리(국고채 3년)	1.107 (-0.009)
환율(USD)	1134.80 (+6.20)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